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 善 周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内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제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序 論

최근 발표된 정부의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전략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더 이상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공업용 지공급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역내에 기업의 유치 및 창업시 국세인 법인세를 해당 지자체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재정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제하에서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자와 당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오던 것의 일부이다. 근간에 완성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그 정책수단으로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다. 이것은 지방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세출운용이 핵심이다. 위의 조치로부터 효율적 세출운용의 촉구와 지방재정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과 상호관계는 이론 및 실제에서 잘 알려져 있다. 지역경제력은 지방정부의 세입기초가 되며, 지방세입규모는 지방세출규모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세출행위는 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순환적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작용 존재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들은 일방적인 연구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 그 이유는 지방재정의 영세성, 운용에서의 제도적 제약, 지역경제정책의 중앙집권적 성격, 지역경제의 개방성 등 그 순환관계를 약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본연구는 지역경제의 지방재정 즉 지방세입에 대한 효과와 지방의 투자성 지출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를 연립방정식체계 속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서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존재여부와 정도,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여부와 정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관련 기존 연구로부터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모색하는 부분이 된다. 제3절은 이렇게 구성된 틀을 구체적인 자료와 모형으로 추정하는 단계이다. 제4절은 추정된 결과를 우리 연구목표에 비추어 해석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5절은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부분이다.

2. 既存研究와 本研究의 概念的 틀

본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장기간에 걸쳐 국내외에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왔다. 먼저 김성태(1991)의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력(GRP)과 지방재정(세출, 지방재정자립도)의 크기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지출(투자성 재정지출)이 지역경제력(광공업생산액)에 미치는 효과는 도시권, 비도시권 등 지역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성태·구정모(1995)는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결정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지역경제력의 지방재정에 대한 효과로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지방정부의 총지출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그리고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서 지역경제성장률에 대한 지방정부투자의 正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김천권(1995)의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GRP와 산업체의 다양화 혹은 전문화지수로서 Ogive 지수와 Entrophy 지수⁽²⁾를 사용하여 지역소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인구구

(1) 기존 연구의 문헌서베이는 김성태·구정모(1995) 참조, 외국의 관련연구에 대한 서베이는 Carroll and Wasylenko(1989) 참조.

모보다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유의성이 있으며, 그 방향은 산업구조의 전문화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배인명·양기용(1995)의 연구는 지역산업이 지방재정세입에 미치는 효과를 기초자치단체인 市정부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한 결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방세입에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광수 외(1993)는 지역경제력을 歲入潛在力(Revenue Potential)으로서 경제활동수준을 의미하며, 재정력을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운영 측면 등을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파악한다. 세입잠재력의 결정변수로서는 제조업종사자 일인당 부가가치, 일인당 주민세부담액, 제조업인구비율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방재정력으로는 일인당 세출, 일인당 표준재정규모, 일인당 경상일반재원규모, 지역경제력이 그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재기(1994)는 지역생산(주민세소득할을 대리변수로 사용)과 지방재정세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자사업비 신장율과 지역생산 신장율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찾아냈다. 한편 개별 투자성경비와는 일정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과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연구의 관심방향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 변수에 따라 그 관계의 정도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본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들도 포함시킬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계량분석에 있어 논리적 상호관계를 고려한 연립방정식 추정방법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생산의 데이터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 이유로 많은 연구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분석에 한정되었다. 지역경제력에 대한 대표변수로서 박완규(1997)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예금은행 예금을 사용하면 기초자치단체인 市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어 기존 연구의 약점 중 하나인 관찰치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력을 잠재적 수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현재 지방재정제도하에서 실현된 자주재원의 크기로 본다.

연구대상인 市급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일반회계)의 항등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지방양여금} + \text{보조금} + \text{지방채} \\ & \equiv \text{일반행정비} + \text{사회복지비} + \text{산업경제비} + \text{지역개발비} + \text{문화 및 체육비} + \text{기타} \end{aligned}$$

(2) Ogive 지수는 $\int \sum (X_j/X - 1/n)^2$ 으로 구성의 전문화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Entropy 지수는 $-\sum (X_j/X) \times \log(X_j/X)$ 으로 구성의 다양화 정도를 보여준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며, 투자성 지출은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로 정의하자. 지역경제력에 대한 정의⁽³⁾는 소득, 인구, 노동력, 고용, 생산성 및 자본집약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잠재적 재정력의 기반으로 보는 것이 본연구와 관련해서 적절할 것이다. 자주재원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역경제력의 함수일 것이다.

$$\text{자주재원} = h(\text{지역경제력})$$

여기서 h 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적 성격을 나타낸다.

지방세율은 市間 동일하며, 비록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탄력세율제도가 허용되고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地方稅源(tax base)과 地方稅入은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지방세원은 재산의 스톡, 소득규모, 소비수준을 포함한다. 특히 재산관련세는 과표현실화율이 정책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市급 자치단체의 지방세입구성을 보면, 세수안정성과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의 비중은 22.5%에 불과하고, 地價가 급변할 때 세수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재산과세의 비중은 48.7%로 높은 상태이다. 기타 담배소비세는 28.8%를 점한다.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비과세 및 감면 제도가 지방세 쏠세목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稅外收入은 요금 및 수수료수입과 재산매각대, 지방채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料금이 公共料金 管理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은 지역경제력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이 효율적 지방재정운용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이므로, 지역경제력은 자주재원으로 실현된다고 전제할 것이다. 우리의 모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text{투자성 지출} = f\{h(\text{지역경제력}), \text{의존재원}\}$$

$$h(\text{지역경제력}) = g(\text{투자성지출, 인구, 소득, 산업구조, 유출도})$$

지역경제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1인당 소득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소득이 추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의 代理變數로 사용할 수 있는 '1人當 預金銀行 預金額'에 대한 자료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박완규(1997)]. 다음은 본연구에서 이용되는 변수들의 설명과 현황을 보여준다.

(3) 이광수 외(1993, pp. 1 - 26) 지역경제력과 지역재정력의 측정에 대한 실증연구 참조.

〈表 1〉 變數의 定義와 平均값(N=67)

* 변수앞의 L은 자연대수를 의미, 금액은 천원

변 수	정 의	평 균	표준편차
<u>내생변수</u>			
LPTUJA	일인당 투자성지출(일반회계)	282.4	124.6
LPSELF	일인당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424.6	171.3
<u>설명변수</u>			
LPOUT	일인당 기타 歲入(보조금+양여금+지방채)	375.3	266.9
LPY	일인당 소득(예금액)	2,769.2	1,618.8
ENTRO	지역산업구조의 多樣化指數(엔트로피지수)	1.81	0.20
RMANUF	제조업 고용비율	0.28	0.16
RSIZE	중소기업종사자비율(중소기업종사자/총종사자)	0.71	0.26
<u>기타 변수</u>			
POP	인구(천명)	256.0	202.7
LPDEV	일인당 지역개발비	187.6	66.2
LPINDEXP	일인당 산업경제비	94.8	80.2
PLOCTAC	일인당 지방세	155.3	49.6
PNLOCTAX	일인당 세외수입	269.2	155.7
PEXP	일인당 지방세출	597.2	218.3
DRAIN	지역의 流出度(국세/(국세+지방세))	0.	0.17

3. 推 定 模 型

계량분석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성 지출과 지방자주재원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동시에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여러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본모형에서 기존 연구결과의 유의성을 재검증하는 것도 부수적인 효과이다. 왜냐하면 기존연구의 목적도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수단을 이용한 경제발전전략의 방향에 指針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연구(최영출(1994))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전략으로 노동집약적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 하면, 제조업, 대기업의 유치를 거론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성과를 우리의 모델에서 확인하는 것도 우리의 연구결과의 하나이다 검증하고자 하

는 가설은 아래와 같다.

假說 1 : 제조업 생산의 증가는 지방재정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약하다.

假說 2 :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지방재정에 유리하다.

김천권(1995)이 시도한 바와 같이 산업구조의 다양화 혹은 전문화는 지역경제 발전전략으로 중요한 선택사항이다. 여기서는 지방재정확충의 차원에서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지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假說 3 : 산업구조의 다양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

위의 개념적 틀에서 도출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 두 가지이다.

假說 4 :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假說 5 : 地方歲出의 投資性 支出은 지역경제활성화,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

이상 5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投資性 支出 方程式:

$$PDEV = a_0 + a_1PSELF + a_2POUT$$

自主財源 方程式:

$$PSELF = b_0 + b_1PDEV + b_2PY + b_3ENTRO + b_4RMANUF + b_5RSIZE$$

4. 回歸分析과 推定結果의 解釋

분석대상이 되는 두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이다. 서로 설명변수로 다른 방정식의 종속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우 통상 최소자승법에 의한 推定量은 偏倚(bias)를 갖는 비효율적 추정량이 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2段階 最小自乘法(2SLS)을 사용할 것이다. 이용되는 자료는 내무부의 한국도시연감(1996)에서 추출한 것이다. 비율이 아닌 값은 대수값을 사용하였다.

비교를 위해 먼저 통상 최소자승추정을 행하였다. 투자성 지출 방정식에서는 자주재원의 t값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투자성 지출의 자주재원의 대한 탄력성은 0.61이고 이것

은 외부재원에 대한 탄력성(0.46) 보다 크게 나타났다.

자주재원 방정식은 결정계수가 0.43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투자성 지출의 지역 경제력 또는 자주재원에 대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은 약 0.3의 탄력성을 가진다. 다양성지수인 엔트로피 지수는 자주재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유의성은 없으나 자주재원에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설명변수의 内生性(endogeneity)을 검증하는 Hausman specification 검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투자성 지출 방정식에서는 도구변수인 SELFHAT의 t 값이 유의하지 못하여 내생성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 반면 자주재원 방정식에서는 도구변수인 TUJAHAT의 t 값이 뚜렷한 유의성을 지니고 있다.

OLS 結果(이하 ()는 t 값)

$$LPTUJA = -0.1894 + 0.6195 LPSELF + 0.4659 LPOUT, R^2=0.78$$

(-1.52) (5.50) (15.3)

$$LPSELF = 0.0773 + 0.0468 LPTUJA + 0.2943 LPY - 0.5319 ENTRO$$

(0.18) (0.78) (5.59) (-2.86)

$$- 0.4014 RMANUF - 0.1314 RSIZE, R^2=0.43$$

(-1.58) (-1.18)

HAUSMAN 檢證

$$LPTUJA = -0.3648 + 0.7317 LPSELF + 0.4500 LPOUT - 0.2835 SELFHAT, R^2=0.79$$

(-1.93) (5.07) (13.73) (-1.23)

$$LPSELF = 0.0652 + 0.4284 LPTUJA + 0.2714 LPY - 0.6499 ENTRO$$

(0.19) (5.23) (6.34) (-4.28)

$$- 0.6767 RMANUF - 0.0618 RSIZE - 0.5821 TUJAHAT, R^2=0.63$$

(-3.21) (-0.68) (-5.75)

2SLS 推定

$$LPTUJA = -0.3648 + 0.4481 SELFHAT + 0.4500 LPOUT, R^2=0.70$$

(-1.64) (2.13) (11.6)

$$LPSELF = 0.0652 - 0.1536 TUJAHAT + 0.2714 LPY - 0.06499 ENTRO$$

(0.16) (-2.16) (5.30) (-3.57)

$$- 0.6767 RMANUF - 0.0618 RSIZE, R^2=0.4669$$

(-2.68) (-0.57)

하우스만 검증으로 확인된 통상 최소자승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2SLS 추정하였다. 투자성지출방정식은 t 값, 결정계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가지 변화는 투자성지출의 자주재원에 대한 탄력성과 의존재원에 대한 탄력성이 비슷한 수준(0.45)을 보이는 것이다. 자주재원(지역경제력)이 1% 증가하면 투자성지출을 0.45% 증가시킬 수 있다.

자주재원방정식은 통상최소자승추정법과 비교하여 먼저 결정계수가 약간 개선되었다. 투자성 지출이 OLS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것은 예상과 정반대되는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성지출이 1% 증가하면, 자주재원이 0.15% 감소하는 것이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유로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제도의 한계로 지역경제력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 또는 지역경제의 개방성으로 투자성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⁴⁾ 등을 들 수 있다.

자주재원의 소득탄력성은 0.27이며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산업구조의 다양성 지수는 OLS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주재원확보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LS 추정에서 유의성이 없었던 제조업의 자주재원에 대한 효과는 이제 -0.67로 유의하며 제조업비중의 강화는 자주재원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역시 유의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5. 結 論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발전의 추구라는 유행을 타고 있다. 이에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의존적 차원에서 벗어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게 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이러한 순환관계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관련된 다른 연구들의 결과들을 재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회귀분석은 내생성이 존재하는 연립방정

(4) 유출도를 총조세 중 국세의 비율로 계산하여, 이 점을 고려한 잠재적 자주재원과 투자성 지출과의 상관관계를 구해보았으나 빈약하게 나타났다.

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본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假說 1 : 제조업 육성은 지방재정에 부정적이다.

본연구에서도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假說 2 : 중소기업육성은 지방재정에 긍정적이다.

본연구에서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假說 3 : 산업구조의 다양화는 지방재정에 긍정적이다.

본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연구의 자체가설인

假說 4 :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

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假說 5 :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

둘째 가설은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예상과 다른 이 결과의 해석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제도적 측면 및 지역경제의 개방성 등을 연구해야 하나,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넘긴다.

본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우선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이 지방재정에 유리하며,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지방재정에 유리하

다는 다른 연구결과는 본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재정제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昌原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

전화: (0551)79-7350

팩시: (0551)79-7199

參 考 文 獻

김성순(1977):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韓國財政學會 지방재정세미나, 169-221.

김성태(1991): "경제력의 지역분포와 지방재정실태," 『지방재정』 2호, 16-31.

김성태 · 구정모(199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정책,"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韓國財政學會, 307-339.

김천권(1995): "지역산업구조와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1, 167-182.

내무부(1996): 『한국도시연감』.

노기성(1995): "지방화시대의 재원도달 방안," 『지방세』 59.1, 10-19.

박완규(1997):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지방재정』 2호, 45-65.

박종구(1990):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이계식 외,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韓國開發研究院, 125-223.

배인명 · 양기용(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행정학보』, 29.3, 771-783.

성명채 · 현진권(1994):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 韓國租稅研究院.

오연천(1988):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이광수 · 김일태 · 구재운(1993): "지방재정력 및 경제력 측정지표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5.1, 1-26.

이재기(1994): "지방재정세출 운영실태의 분석," 김기태 외, 『한국재정론』, 법문사.

553-577.

최영출(1994): “지방기업의 지방정부재정에 대한 과급효과분석,” 『한국행정학보』, **28.2**, 575-591.

Bartik, T. J.(1994): “Jobs, Productivity, Local Economic Development: What Implications Does Economic Research Have for the Role of Government,” *National Tax Journal*, **47**, 847-861.

Bartolome, C. A. M.(1997): “Does State Economic Development Spending Increase Manufacturing Employment,” *Journal of Urban Economics*, **41**, 153-175.

Booth, D. E.(1978): “The Differential Impact of Manufacturing and Mercantile Activity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venues,” *National Tax Journal*, **31**, 33-43.

Carroll, R., and M. Wasylenko(1989): “The Shifting Fate of Fiscal Variables and Their Effect on Economic Development,” Proceedings of 83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National Tax Journal*, **42**, 283-290.

Ladd, H. F., and K. L. Bradbury(1988): “City Tax and Property Tax Bases,” *National Tax Journal*, **41**, 503-523.

Morrison, C. J., and A. E. Schwartz(1996): “State Infrastructure and Productive Perform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86. 5.** 1095-1111.